



(주) 태평양화학 디자인실  
과 장 이 영 식

## 나의 包裝觀

한국 포장산업에 있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기초기술 개발능력의 부족에 따른 소재의 경쟁력 부족과 근시안적인 영업이익추구에 품질저하 및 품질관리 부실로 로트별 품질차이가 아닐까 생각하며, 포장은 상품의 보호와 가치표현은 물론 사용자 환경문제와 최종 폐기에 이르는 상품유통의 전과정을 면밀하게 분석 설계하는 폭넓은 개념인식등 환경친화적인 포장기법, 포장재의 사용등은 물론 더욱 강화된 품질개발, 품질유지등 선진국 품질관리 기법등을 적극 도입한다면 우리의 국제경쟁 요소로서의 포장의 기능을 다하게 될 것이다.

### 1. 디자이너 입장에서 보는 포장

최근의 포장부문의 발전양상을 보면, 과거 수십년동안의 그것과 사뭇 다름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포장환경의 변화는 포장디자이너들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단순히 제품의 보호라는 기능에서 출발한 원시적 포장개념은 근래에 이르러 제품의 상품성을 배가시킴으로서 소비자의 구매욕구를 자극하고, 적극적인 정보전달을 가능케하여 실질구매에 이르게 하는 근대적 의미의 포장으로 발전되어 왔으며, 최근에 이르러서는 포장자체가 하나의 상품으로 팔릴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최근의 국내 각 백화점에서 볼 수 있는 선물코너에는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듯 각종 포장지는 물론, 개성있고 예쁘게 제작된 수많은 종류의 선물상자들을 쉽게 볼 수 있어서 이젠 소비자들이 상품본래의 포장과는 별도로 최종포장을 직접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편, 이렇게 판매용으로서의 포장

개발뿐만 아니라 근래에 이르러 사회적으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환경보호운동 차원에서도 폐기물 감량화 전략의 일환으로 각 제조업체에서 경쟁적으로 도입, 반영하고 있는 재활용 용도로서의 포장개발도 매우 바람직한 포장 개발전략이라고 할수 있어서, 산업계에 종사하는 포장디자이너로서의 사회적 책임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즉, 창조적 작업으로서의 포장디자이너는 상품의 보호와 가치표현은 물론, 사용자 환경문제와 최종 폐기에 이르는 상품유통의 전 과정을 세밀하게 분석, 설계하여야 한다는 폭넓은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러한 면에서 일선 포장디자이너들의 철저한 사회의식과 투철한 프로의식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 2. 한국포장재 및 포장업계의 문제점

한국의 포장재산업에 있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점은 기초기술 개발능력의 부족에 따른 소재의 경쟁력 부족과 근시안적인 영업이익추구에 따

른 품질저하 및 품질관리부실에 따른 로트별 품질차이가 아닐까 생각된다.

첫째, 한국의 눈부신 경제발전과정과 결과를 평가하는 자리에선 항상 빠지지 않고 거론되는 문제점중의 하나가 응용과학의 발전에 못미치는 기초과학의 수준이듯, 국내 포장재의 문제점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즉, 범용 소재와 범용 기술만으로는 무한경쟁 시대에서의 비교우위를 차지할 수 없을뿐더러, 환경보호차원에서 접근과 같은 고도기술 응용포장은 매우 어려울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의 구체적인 사례로서 가장 널리 쓰이는 포장재의 하나인 종이류를 보면, 저급에서 중급에 이르는 범용종이와 판지류는 (예, 크라프트지, 신문용지, SC마닐라등...) 어느정도 재생용지의 사용이 보편화되어 있으나, 고급종이와 판지류의 재생지 개발 및 사용은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예를 들어 고급의약품 및 화장품등의 패키지에 널리 사용되는 CCP (Cast Coated Paper)의 경우, 국내

에서 생산되는 모든제품에서 재생용지의 활용은 찾아볼 수 없어서 20여년부터 재생용지가공CCP를 개발하여 사용해온 일본의 경우와는 많은 차이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패키지의 표면광택유지와 보호를 위해 쓰이는 필름 라미네이팅의 경우에도 구미각국에서 이미 널리 보편화되어 있는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 (Cellulose Acetate Film: 펄프에서 가공된 투명필름)의 개발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고가의 수입제품을 사용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즉, 사회적인 환경보호 활동에의 적극참여 노력이 소재의 개발부족으로 이를 뒷받침 해주지 못하는 것이며, 기술개발요청과 수요를 국내수요의 한계와 경제성을 근거로 개발을 등한시하는 것으로 환경친화성 포장재의 국가경쟁력 확보노력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우려된다.

두번째로, 신포장 개발과 기존포장의 지속적인 유지관리에 가장 큰 어려움은 포장재의 품질수준이 일정치 않다는 점이다.

엄연히 제반 포장재의 품질규격에 대한 사전설계와 품질관리 지침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로트 단위별로 중,소규모의 차이점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음은 실로 부끄러운 일이며 이는 포장재 공급업체의 경제성추구 의식을 논하기 이전에 도덕성과 사회성 문제와 직결된 한국포장업계의 관례와도 같은 것이어서 포장재의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 3. 국제경쟁 요소로서의 포장

위에 열거한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면서도 한국의 포장산업은 충분한 국제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필자의 프랑스 체류기간동안('92년~94년)의 업무중 부딪친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현지포장비용의 절대적 고가추세였다.

최고의 선진국답게 잘 발달된 사회보장제도는 상대적으로 각종 제조비용의 상승으로 동일한 수준의 국내포장비용의 2.5~3.5배에 이르는 가격대였고 (물론 환율차이를 감안하고서도), 발주에서부터 납품에 이르는 평균납기도 우리나라에 비해 2~3배는 길어 다년간 국내 포장업체와의 업무진행에 익숙해 있었던 필자의 습관(?)으로는 적응하기가 무척 어려웠다.

모든 포장재가 국제경쟁력을 갖는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카톤박스나 골판지상자,쇼핑백등은 충분한 기술적, 가격적 경쟁력을 갖고 있는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최근 국내에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지관류등은 (사진1) 업계의 노력에 따라서는 절대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그

러나, 앞서 언급한 내용이지만 국내포장재의 품질수준과 포장업체의 기술력, 품질관리 기법에 있어서 아직도 적지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만큼, 국제경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내포장업계의 각별한 분발이 요구되는것은 사실이다.

한편, 이와같이 포장자체의 국제경쟁력은 포장업체의 노력으로 충분히 갖추어 나갈수 있지만, WTO체제하에서의 우리 상품의 국제경쟁력은 기본적으로 상품자체의 기능성,품질,외관,서비스등의 비교 우위를 가져야하겠지만, 포장수준의 국제화를 이루어야만 완벽한 국제 경쟁력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 포장수준의 국제화에는 최우선적으로 포장 디자인의 국제화를 도모해야 하며, 동시에 이미 선진국들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환경 친화적인 포장기법,포장재의 사용등은 물론, 더욱 강화된 품질개발,품질유지등의 선진 품질 관리기법등을 적극도입하여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규제가 강화될 Green Round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 태평양 실록차 포장 디자인